

전남대 의대 오늘 '비대면 개강'...조선대는 또 미뤄

학기당 수업시수 15주 이상 확보해야 해 온라인 강의 시작 전대병원 내달 3일 외래 휴진...조대병원은 주중 의견 수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로 약 두 달간 학사일정을 연기했던 전남대 의과대학이 수업을 재개한다.

28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의과대학 학사일정을 29일부터 원격수업 방식으로 시작한다. 전남대 의대는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이상 학사일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계획된 학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유급, 국가고시 응시 자격 결격 등의 문

제가 발생한다.

당초 전남대 의대는 지난 2월19일 개강을 했지만 의대생들이 정부의 비대면 증원에 반발,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에 동참하지 않아 학사일정 재개를 3월25일에서 4월15일로 그리고 또다시 4월29일까지 세 차례 미뤘다.

현재 전남대 의대생 731명 중 575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도 수차례 연기 끝에 29일 개강을 검토했지만 현 상황

에서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휴강을 지속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는 재학생 725명 중 533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앞서 전남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주 1회 휴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했고, 찬성률이 82.3%로 집계됨에 따라 다음 달 3일 외래 휴진을 단행기로 했다. 단, 휴진은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진료과목별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전남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무책임하

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의해 2개월 이상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으나 참담한 현실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며 "육체적·정신적 한계 상황에 이르러 환자의 안전 진료와 의료진의 진료 역량 및 건강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 1회 회복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비대위는 "5월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 응급, 입원,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 분야에 주 1회 휴진을 할 것"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진료 형태를 추가로 변경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대 비대위도 '주 1회 휴진' 관련 이번 주중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선대 비대위 관계자는 "다음 달 2-3일께 각 진료과목별 교수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적정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의견을 취합해보고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학사일정 재개는 학생들이 유급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날짜로 결정, 학장단 집행부와 대학본부 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 의대 비대위는 최근 기간 취합했던 의대 교수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학 또는 병원 측에 제출기로 결정했다. /김다이지



계속되는 의정 갈등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대위는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김영근기자

광주도시공사 '통상임금' 항소심도 패소

전·현직 259명 소송...법원, 최하등급도 받는 평가급 '고정임금' 인정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도 "최하등급 평가를 받은 직원에게도 주는 '평가급'은 고정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28일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 25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총 2억3천588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광주도시공사가 내부평가급을 통상임

금으로 보지 않아 관리업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야근 근무수당 등을 더 적게 받았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평가급은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기자

"구의원 비판글 고소 본인 과오서 비롯"

북구청 공무원노조 논평

현직 북구위원이 공직자 익명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북구청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논평을 통해 "북구 직원들의 유일한 의견 제시 창구인 자유게시판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변질되지 않을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논평은 지난달 28일 A 북구위원이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이후 불거진 일과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작성됐다.

앞서 A 의원은 '구급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한 공무원이 '아니 의원님 말씀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논할 자격이 있다는 식의 비판을 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고의성을 가진 의정활동 방해, 입법 기능 무력화 시도"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노조는 "애초에 비위 사건이 없었다면, 본인의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당한 조치를 받았더라면, 누군가 게시글을 작성하고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작금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꾸짖자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사자성이 일어타수(一魚濁水)에 빗대 A 의원을 비판했다. /안재영기자

대법서 돌아온 '아이돌보미 임금소송' 원고 승소

법원 "광주대·초당대 산학협력단 등 수당 지급하라"

광주대학교·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을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한 아이돌보미들이 대법원에서 근로자임을 인정 받아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28일 아이돌보미 14명이 광주대·초당대 산학협력단과 서비스 제공기관 2곳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19년 7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광주고법 2심 재판부는 "아이돌

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기관의 운영 권한만을 위탁받은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 "아이돌보미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결하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안재영기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용과 교육을 거쳐 활동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북부규율과 활동점검을 받은 원고들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중 4명의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140명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민사2부는 다른 아이돌보미 6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과 서비스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2천~34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안재영기자

경찰, 광주→김제 90km 난폭운전 50대 실탄좌 검거

경찰이 50분가량 추격전 끝에 타이어에 실탄을 좌 난폭운전자를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50)를 불발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8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세우라는 경찰 요구에도 난폭운전을 이어가던 A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나 들목까지 달아났고, 추격한 경찰에 의

해 이날 오전 10시5분께 검거됐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도 여러 차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A씨 검거를 위해 경찰은 공포탄에 이어 실탄을 발포했다. 실탄은 A씨 차량 앞 타이어에 명중했고, 가까스로 멈춰 선 차량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 등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병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다가지치움, 돌봄 플랫폼 서비스

내일이 밝는 기획도시 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자동연결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